

# 메종 드 레브 (Maison de Rêve)



●● 이 상호는  
 '꿈의 집'이라는 뜻이다.  
 이의 우리말 표기는  
 '메종 드 레브'와 같이  
 띄어 써야 옳다. ●●

'메종 드 레브'라는 말은 얼핏 보아도 단번에 프랑스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. 그렇다면 그 뜻은 무엇일까?

'Maison[메종]'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귀에 익숙한 말이라 생각한다. 국내 월간지 중 프랑스 잡지의 한국어판으로서 '메종'이란 잡지가 시판되고 있기 때문이다.

'Maison'을 음절로 나누어 보면 'mai-son'이 된다. 복합모음인 'ai'는 [에]로 소리나고, 역시 복합모음인 'on'은 [옹]으로 소리난다. 또한 자음 's'는 그 앞과 뒤에 모두 모음이 오면 [시]이 아니라 [즈]로 발음된다. 따라서 이 단어는 [메종]으로 발음되는 것이다. 이 말은 '집'이라는 뜻이다.

보통 프랑스풍의 집이라고 하면 프랑스 시골 농가를 연상한다. 프랑스 농가는 보통 1백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 수 세대에 걸쳐 보완, 계승되었다. 또한 건축재료, 양식, 건물의 배치 등에서 그 나라의 환경과 잘 어울린다는 인상을 받는다. 한 가지 예로 지붕을 살펴보면 프랑스 동부지방은 대부분 기와 지붕이고 서부와 북부지방은 슬레이트 지붕이 지배적이다.

'Rêve'는 '꿈'이라는 뜻이고 단어 끝에 오는 모음 'e'는 발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[레브]로 발음된다. 'de'는 전치사로서 '~의'라는 뜻이다. 따라서 'Maison de Rêve'라는 말은 '꿈의 집'이라는 뜻이다. 이의 우리말 표기는 '메종 드 레브'와 같이 띄어 써야 옳다.

덧붙여 '하얀 집'을 프랑스말로 고쳐보면 'maison blanche[메종 블랑쉬]'가 된다. 프랑스말은 형용사가 수식하려는 명사 뒤에 오기 때문에 'blanche(하얀)'가 'maison(집)' 뒤에 온 것이다. 이를 'Maison-Blanche'와 같이 대문자로 쓰면 이 단어는 고유명사가 되어 미국의 '백악관'을 뜻하게 된다.

또한 '궁전'의 프랑스말은 'Palas[팔레]'이고 '꿈의 궁전'은 'Palas de Rêve[팔레 드 레브]'로 표기한다.



□글/ 김재열

필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를 수료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부 차장을 역임했다. 현재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 서울지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랑스 말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.